

平民党 총재代行

朴英淑은 누구인가

民正党 지역구 女性 正희경·김정숙의 辯

36

北京 요리 800여 山海珍味에 감탄

요리가 韓晶惠의 中共紀行 4

54

風水地理 그 神秘의 세계 3

68

美 獨身女들의 性과 AIDS 공포

102

연예인 부동산 재벌의 理財學

26

女子들 몸의 「知」를 끄는 사진작가 이재길

64

LA 교민들 주름살 제거 등 성형수술 붐

76

성고려 첫남자, 유산까지 했는데 모른체

116

개소주집서 쓰는 한약재 엉터리 많다

112



◇李美淑김준식.

일본 映画가 몰려온다

45

스타 探險

개그맨

김병조

편 120



컬러畫報

- ★李美淑 결혼
- ★연극 「매춘2」 공연
- ★르포 베를린 장벽
- ★「나 어때요」 모델 김미정
- ★海外 「女性用콘돔」 개발

大好评 시리즈

- ◇株 작전 126
- ◇不動産작전 127
- ◇생활만화 「재치부인」 60
- ◇장편소설 「영웅성을 위하여」 106
- ◇해외칼작만화선 72

연예 파노라마

- 최지민PD 업서 48
- 이현주 짝꿍한마당 30
- 연예단신 48
- 팝송세계 50

고정란

- 금주의 당선운세 134
- 애독자퀴즈 133
- 女體의 美學 건강 漢方 130
- 러브 궁금해모 131
- 숨은그림찾기 135
- 물론디 132

인기만화 「NG 청춘」 88

민黨 총재대행

성고문사건의 권인숙양 재판정에서 규탄구호를 열렬히 외쳤으며,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때는 상복에 베수건을 쓰고 시위를 했던 재야여성운동가 박영숙씨(朴英淑·56). 작년11월 평민당 부총재로 영입, 정치가로 일대변신을 꾀한 그녀가 김대중전총재의 사퇴로 말미암아 총재권한대행의 중책을 맡아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제2의 박순천여사(朴順天)로 지목받고있는 박영숙씨 풀스토토리.

〈曹慧蓮기자〉

朴英淑은 누구인가

최루탄 추방

시청료 거부운동

에 앞장섰던 在

YWCA서 10여년 봉사,

◎재야운동권의 연장선

박영숙씨가 일반대중앞에 전면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3월17일, 김대중전총재의 사퇴성명서를 대신 읽는 장면이었다. 작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평민당부총재로 영입된 박영숙씨는 당산만해도 재야여성운동가의 정치입문 정도로밖에 일반인에게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 그랬던 박씨가 김총재의 사퇴로 평민당내 유일한 부

총재이기 때문에 총재권한대행의 자리에 앉게된 것이다.

『어말결에 권한대행이 되었어요. 나에게 너무 벅찬 자리라 사양했지만, 야권통합이라는 난제를 앞둔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이 더 나을것 같다고 하길래 할 수 없이 수락했어요.』

부총재였을때만 해도 여러 당중진층의 하나였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 정치경험이 부족한 처지에 이제는 매일 책임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털어

놓는다.

『정치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더군요.』

오늘 모든것이 다 막힌것 같은 답답한 심정으로 밤을 새웠는데, 내일이 침 무엇인가 희망이 보여 밝은 세상이 되곤 하는 정치인의 생활은 「매일 죽음과 삶을 왔다갔다 하는 셈」이라고 표현하기도.

이제부터 자기에게서 허물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 박씨는 정치초년생으로 평민당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여태

약 력

- ▲1932년 평양시 수동(壽洞)태생.
- ▲1947년 월남. 전남여고 5학년에 편입학.
- ▲전남여고졸업, 이화여대영문과입학.
- ▲1955년 이화여대졸업.
- ▲YWCA간사·총무·실행위원 역임.
-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위원장.
-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위원장.
- ▲85년 여성단체연합회 수석부회장.
- ▲KBS시청료거부 범시민운동여성연합회장.
- ▲87년11월, 평화민주당부총재.

◇재야여성운동가에서 정치가로 변신한 박영숙씨는 여성정치가의 참가치는 기존가치관에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여성계 선봉장

성고문·고문치사사건 규탄때도 앞장

까지는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평민당의 독특한 분위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즉 재야운동권의 인사가 많이 영입되어 운동권의 연장감이 느껴졌다고 한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해고된 사람·근로자·구속자가족 등 늘 만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성 정치인들도 재야인사들의 도덕성을 높이 사주는 풍토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비교적 없는 그룹이 평민당이라고. 그렇기에

자신의 정치력 부족을 애써 위장할 필요없이 솔직히 시인하고 대신「그래서 나는 이런이런 분야에서 보좌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단 몇개월 안되는 동안 터득한 것이 있다면, 재야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결과에 대한 고려보다는 요구·비판·규탄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반해 평민당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책임 때문에 즉각 반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어려움은 야권통합의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2중 3중의 플레이를 거러내는 능력이 부족했던 점이다. 박씨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치력 부족이라고 분석한다.

◎여성운동가에서 정치가로 변신

87년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평민당측에서 여연(여성단체연합회)에 부총재직을 맡을 여성 대표의 추천을 부탁해왔다. 여연의 여성지도자들이



◇박종철고문치사사건때, 박영숙씨는 여연의 회원들과 함께 배수건을 쓰고 규탄시위를 했다.

모여 심사숙고한뒤 제1부 회장인 박영숙씨를 추천했다. 당시 여연에서는 정치권밖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만 되돌아오기 일쑤이니, 우리 스스로 정치일선에 나서야 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박씨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양했지만 여연측에서 개인이 아니라 여성의 대표로 추천한 것이어서,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다. 추천을 받아 남편이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사회이다.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느냐?

세째, 정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여성운동과는 영원히 결별이다. 정계를 그만두더라도 생계를 위한 장사는 할 수 있을지언정 다시 여성운동을 할 수는 없다. 괜찮겠느냐?였다.

남편은 이 세가지 질문만을 던져주고 만약「그렇다」는 답이 나오거든 결정해도 된다고 했다. 결정을 내리면

것이였다.

◎Y우먼으로 여성운동 시작

박씨가 여성운동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1955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후 YWCA에 몸담으면서부터였다. 대학시절부터 Y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박씨는 훈련간사로 여성운동의 실무를 익혀나가기 시작했다.

그후 중고등부·청년부·대학생부등 각부의 간사를 거쳐 63년,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제1호 상근총무였던 이희호씨(李姬鎭·김대중전총재의 부인)의 후임으로 총무에 임명되었다. 총무로 6년동안 재직하면서 그녀는 한국YWCA창립50주년행사, 반백년史편찬·간행사업, YWCA회관 신축사업등 역척스럽게 일을 해 명실공히「Y우먼」의 되었다.「일에만 빠져 지내다보니 결혼은 염두에도 없었다」는 박씨. 그러나 인연은 어쩔 수 없었나보다. 총무인 박씨가 Y전국대회에 안병무교수(당시 중앙신학교학장)을 강사로 초빙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67년, 47

梨花졸업후 30년간 여성운동 외길

「명동사건」으로 남편 구속후 인권에 관심

편인 안병무교수(安炳茂·한신대 명예교수)는 박씨에게 세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 첫째는 여성운동에 바쳐온 30년 동안은 도덕성에서나 여러면에서 존경을 받는 생활이었다. 그러나 정치세계는 이권다툼의 아수라장인데, 미련없이 여성운동가로서의 위치를 결산할 수 있겠느냐?

둘째는 정당이란 개인보다 단체의

남편과 아들은 아내·어머니를 믿어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내린 박씨는 여연부회장·아시아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장·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국민운동서울본부 상임대표·KBS 시청료거부 범시민운동여성연합회장등 자신이 관련된 단체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그렇게해서 여성운동가에서「정치가 박영숙」이라는 새인물이 탄생된

살 노총각교수와 결혼을 했다.

결혼후에도 계속 여성운동을 해오던 박씨는 외아들 재권(載權·서울대 수학과2년)이가 돌무림 Y에 사표를 내야했다.

시력이 좋고 천정이고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들양육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후 1년쯤 쉬고 다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4년쯤 재직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지 못했던 박씨가 앞장서서 규탄구호를 외칠 정도로 가슴에 용어리를 지게 만들었으며, 박종철고문치사사건 때는 상복에 배수건을 쓰고 남영동 대공분실앞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연행된 적도 있었다. 또 이한열군사건 때는 최루탄추방운동을 전개했으며 KBS 시청료기부운동도 끝낼 해왔다.

시위나 규탄대회에 나설때마다 집현관에 속옷·양말·스웨터등을 쌀 보

그래서 박씨는 대학생들이 시위를 할때 "엄마!"를 부르고 나간다니 우리는 "종철아!" "한열아!"를 부르고 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듯 재야운동의 선봉에 섰던 박영숙씨가 이제 정치권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들에게 "엄마는 뿌피부르자"라고 놀림을 받는다며 웃는다.

그녀는 아권통합의 난제가 끝나면,

시위·규탄대회 나설때 투옥될 각오로 옷보따리까지 준비 在野서政治人변신하자 대학생아들 "엄마는 뿌피부르자" 놀려

『하루는 남편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러니 둘중에 한사람이 희생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그말에 박씨는 두말없이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무보수봉사활동으로의 여성운동은 계속했다.

박씨의 여성운동방향에 전면 수정을 가한 계기는, 76년 세칭 '명동사건'으로 남편이 구속되었던 사건 때문이었다. 구속자부인들과 함께 구명운동에 나섰던 박씨는 「여성해방·남녀평등이 잘못된 사회구조의 개혁없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각각을 하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4년동안 교회여성운동을 조직화하고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제8차 서울총회에서 아시아여성대회를 관하면서 박씨는 인권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두투쟁의 선봉

박씨의 여성운동이 더욱 밀도높아진 것은 85년3월, 22개 재야여성단체가 모여 결성된 여연에서 활동하면서 부터였다.

특히 성고문사건의 권인숙양재판 때는 여대까지 쑥스러워 구호를 외치

마리를 마련해놓는 박씨. 남편과 아들밖에 없는 박씨는 자신이 혹시 투옥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았던 것이다.

『남보다 배짱이 있어서 가두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최루탄을 맡기 싫어 무슨 핑계라도 대고 나가고 싶지 않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권인숙양이 자기딸과 같이 느껴지고 박종철군·이한열군이 자기아들같이 느껴질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박씨였다.

『최루탄추방운동 당시, 교회여성들이 참여했는데 거리에 나서기도 전에 겁부터 내더군요.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여성의 대표성을 복권하여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념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정치권안에 여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수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박씨는 지적한다. 당리당략에 그대로 휩쓸려 들어가 아무런 변혁도 가져올 수 없다면 그저 민정당원·평민당원 한사람이 늘어난 것이지 여성정치인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대표성을 지녀서 기존가치관에 변혁을 가져와야 그것이 여성정치인의 참 가치라고 박씨는 힘주어 말한다. <>



◇김대중전총재의 사퇴성명을 대신 읽고있는 박영숙총재권한대행.

民正黨 지역구 공천 女性 新人

교육자 30년

정치인 변신한

정희경

민정당 서울 강남 갑구 공천자가 된 정희경씨는 71년 첫 남북적십자 회담 통일정 대표로 각광을 받았던 여류다. 교육계에서 꼭 30년간 몸담아오다 이제 갑자기 정치가로 변신. 헌정 사상 지역구 출신 다섯번째 여성 의원직을 노리고있다.

(李亨淑기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중요대목... 길

깨끗한 이미지와 설득력있는 말솜씨, 女性界

지난 18일 새벽 6시. 성경을 읽고 있던 김희경씨(56·현대고교 교장)는 평생에 가장 어려운 전화를 받았다.

「교육자로 만 30년간 살아온 제가 민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결정됐다는 전화였어요. 그보다 20일전에 후보에 기른됐다는 연락을 받고 완강히 고사한 후 고민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국은 변신기로 결심을 했어요」

전화를 받은 후 정희경씨는 현대고 교학부학에게 발송할 통신문 「변신의 변」을 쓰기 시작했다. 58년 4월1일 이화여대 강단에 서기 시작해서 교수 13년, 연구생활 2년, 교장 15년등 꼭 30년간 교육자로 살다가 사임하는 감회와 새로운 각오를 적었다.

「제 생애에 어려운 결단이 두 번 있었어요. 첫째는 대학교수에서 이화여고 교장으로 부임할 때(71년)였고,

두번째가 이번 출마를 결심한 일인데, 이번이 더 어렵고 고민이 컸어요」

차분히 변신의 변을 이어 나간다.

「남북 적십자 회담이 71년에 역사적으로 열렸을 때 통일정 대표가 된 이후 꾸준히 정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길을 가게해달라」는 평소의 기도대로 미동도 않고 교육계에만 남았었읍니다. 이번에도 유혹을 받고 개인의 경력과 국가의 역사를 생각했죠. 그리고 역사의 중요 대목인 이 시점에서 변신기로 했습니다. 가왕 입법기관에 들어가려면 전국구보다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게 정도라 생각해서 지역구를 택했어요. 형극의 길이겠지만 정도(正道)에서 최선을 다할 결심입니다」

165cm의 흰칠한 키에 최고 깨끗한 피부. 시원하게 잘 생긴 얼굴이다. 교육자로서의 깨끗한

회담등에서 보여준 설득력있고 조리있는 말솜씨, 여협 부회장 등 여성계에서의 활약을 포함, 여러 능력이 위전 참신한 여류라는 점이 1천천의 이유라는 뒷배기다.

정희경씨는 이화여중(6년제 사대·미국 캔자스 주립대 대학원사)·미국 오하이오 노던대학(박사)·미국 교육심리학 박사, 58년 강사로 교육계에 발을 디딘 사대·이대·성균관대학에서다가 71년 이화여고 교장, 고교 초대 교장을 지냈다.

그의 활동은 교육, 통일, 노년·청소년관계로 3분된다. 계로는 71~73년 남북 적십자 회담의 부의장(85년~현재) 있다.

교육, 문화계 각 기관에서